

<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◎ 어제 새벽에는

“반복해서 해야 잘 된다. 반복해서 하면, 안 되는 것도 잘 된다.
<반복할 때>는 ‘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’이 아니라,
<더 차원을 높여서 반복하는 것>이다.” 말씀했습니다.

1. <자기 관리>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.
2. 지금은 ‘자기 관리 시대’ 다.
3. <신앙의 세계>에서 보면, 지금은 ‘실습 시대’ 다.
4. <실습>을 하지 않으면, 실전에 약하고 못 한다.
5. <실습 한 자>는 알고, 자신있게 한다.
6. 실제로 실천하면서 자꾸 움직이고 행하여라. 그러려면 <기도>도 열심히 하고, 각종각색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과 감동을 잘 받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된다.
7. <화목>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. 실제로 행동하면서 자꾸 화목하게 해야 된다.
8. <이론>보다 ‘실제’ 다.

9. <실전>에 강한 사람이 되어라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. - 주께 배워라. <하나님의 말씀>은 ‘검’이라, 자기의 모순을 이리저리 다 잘라준다. <하나님의 사람>이 ‘사람’을 만드는 것이다.
10. <새벽 기도>도 지금은 ‘실습 기간’이다. 이때 <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>은 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고로 몰라서 못하게 된다.
11. <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>은 ‘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것’과 같다.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배워라. 그러면 알게 되고, 깨닫게 된다.
12. <가장 큰 일>은 ‘자기 인생 만드는 일’이다. 자기를 고치고 만들어 놓으면, 자기 위치에 가서 저마다 해당되는 일을 한다.
13. <포클레인>을 고쳐 주면 그 위치에 가서 일을 하고, <자전거>를 고쳐 주면 그 위치에 가서 일을 하고, <차>를 고쳐 주면 그 위치에서 달리면서 자기 일을 한다. 이같이 <자기>를 고치고 만들면, 자기 위치에 가서 일을 한다.
14. <새벽 시간>은 ‘자기를 고치는 시간’이다. <새벽 예배에 오는 것>은 ‘자기를 고치고 만드는 학원’에 오는 것과 같다. 그러니 늘 새벽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, 자기를 만들어라.

<지혜에 대한 말씀>

15. 지혜롭게 되려면, ‘섭리의 새벽 학원’ 곧, ‘새벽 예배’를 다녀야 된다.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.
16. <순간의 지혜>가 아니라 ‘실제 지혜’다.
17. <아는 것>이 ‘지혜’다.
18. 선생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어 10년 동안 매일 ‘새벽’에 공부를 했다. 그러니 매일 80개, 150개씩 잠언을 받았다. 그리고 매일 기도하니 지혜롭게 됐다.
19. <지혜의 깊은 단계>에 들어가면, 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.
20. 하나님은 ‘지혜와 지식과 공의와 사랑’이 충만한 존재자이시다. 고로 <지혜의 하나님>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, 지혜롭게 된다.
21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,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으라. 하나님과 성령님은 ‘답의 원천’이시기 때문이다.
22. 사람들을 보면,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을 안 배워서 묻기도 하고, 혹은 이미 아는 것인데 묻기도 하고, 혹은 별 것도 아닌 것을 묻기도 한다. 그러나 이미 ‘큰 것’은 다 가르쳐 주었다. <시대>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, <주>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,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, <사랑의 세계>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. <잘 되고 잘 되는 방법>도 다 가르쳐 주었다. 그런데 왜 물을까? <지혜>가 없어서 그러하고, 혹은 ‘학문의 아이큐(IQ)’는 높는데 ‘생활의 아이큐(IQ), 생각의 아이큐(IQ)’가 낮아서 그러하다.

23. <하나님의 말씀>은 ‘세상에서 공부하는 것’과는 전혀 다르다.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다 해도 ‘하나님의 말씀’이 비교가 안 되게 더 크다. 선생은 이를 알고 ‘하나님과 성자께서 해 주시는 말씀’을 귀히 보고, 그리고 ‘성경의 모든 말씀’을 계속 읽었다. 하나의 영계로 읽으면서 2000독을 했다. <하나님의 말씀>을 귀히 보고 공부하니, 뇌가 쭈시고 고통을 받았을 때도 10개월 만에 ‘책 7권 분량의 말씀’을 받아서 다 외웠다. 그리고 하나님께 배워서 ‘천문학의 천재’가 되었다. 자연 성전에 쌓은 돌들을 보아라. 하나님께 ‘물리학’을 배워서 80톤, 100톤짜리 돌들을 쌓았다. 또 ‘인간 심리 박사’가 되어 사람들을 꿰뚫어 본다. 그리고 ‘진리 박사, 영계 박사, 하나님 말씀의 박사, 성경을 해석하는 박사’ 등 100개도 더 된다. 또 ‘전쟁 박사’다. 세계 전쟁 때도, 민족 전쟁 때도 지도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. <세상 박사>면 모른다. <하나님에 대해 아는 박사>여야 된다. 또 ‘농사 박사, 인삼 박사, 나무 박사, 조경 박사, 전지 박사’다. 세계에서 최고로 전지를 빨리한다. 또 ‘축구 골인 박사’다. 한 게임에 63골씩 넣었다. 또 ‘풍수지리 박사’로서 세계에서 제일 잘 안다.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. 하나님께서 “진짜 명당은 <동쪽>에서 <서쪽>까지 한 틀로 되어 있어야 한

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조가 맞아야 미인이듯, 명당도 그러하다.” 하시며 가르쳐 주셨다.

24. 선생은 종교 역사 중에 ‘최고, 1등한 사람’ 이다. 하나님은 ‘보낸 자’ 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고, 그 뜻과 목적을 펴시니 지혜로워야 된다.

25. <영적 아이큐(IQ)>가 높아야 된다.

26.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하는데, 은혜가 없고 불이 잘 안 온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더듬해도 강한 불이 온다. - 이런 자가 ‘영적 아이큐(IQ)’ 가 높은 자다.또 어떤 사람은 말도 잘 하고 이론도 잘 아는데 전도가 안 된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도 전도를 잘한다. - 이런 자가 ‘영적 아이큐(IQ)’ 가 높은 자다.

27. 짐승같이 혈기내고, 분노하는 자들은 ‘영적 아이큐(IQ)’ 가 아주 낮은 자들이다.

28. <자기 아이큐(IQ)>를 평가하면서, 자꾸 고쳐야 된다.

29. 고쳐야 <이상세계>가 만들어 진다.

30. <이상세계>를 만들려면,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.

31. 머리가 좋아지려면, ‘하나님의 말씀’ 으로 의롭게 닦아져야 된

다.

32. 자기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,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면서 ‘착하고 선하게 만들어진 인생’이 되어야 한다. 자기를 이같이 만들면, 이상세계를 이루고, 머리가 좋은 자가 된다.
33. <수학>을 잘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. 그것은 ‘공부 머리’가 발달한 것이다. <머리가 좋은 것>이란 ‘수백, 수천 가지’가 있다. 센터별로 봐야 된다.
34. <자기 형상>을 멋있게 만들어라.
35. <자기 영의 형상, 인격의 형상>을 멋있고 권위있게 잘 만들어라.